

방법으로서의 동아시아와 신고증학(新考證學)

[서평] 정민(2014), 『18세기 한중 지식인의 문예공화국-하버드
엔칭 도서관에서 만난 후지쓰카 컬렉션』, 문학동네, 720쪽.

진 재 교*

1. ‘동아시아’의 지평과 문예공화국

학문 장에서 거론되는 동아시아 인식은 서구 중심의 연구 방법을 타개하고 그것과 구별되는 새로운 지식의 생산 방식을 추구한다. 하지만 최근의 동아시아 논의는 구체적인 대상을 가지고 논쟁하기보다 주로 담론이나 이념의 차원에 머문 경우가 많다. 이러한 추상적 동아시아 논의는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구체화시킬 때 생산적 논의로 발전할 수 있다. 특히 새로운 지식 생산 방식을 추구할 경우, 동아시아를 방법론으로 사고하고 새로운 ‘앞’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의 대안이다. 이때, 연구방법으로서의 동아시아는 인식론의 문제다.¹⁾ ‘동아시아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는

* 성균관대학교 한문교육과 교수

1) 이미 임형택 교수가 제기한 바 있듯이, 이는 인식론의 중심에 동아시아를 배치하고 시간을 종으로 설정하는 구도다. 여기에 대해서는 임형택(2005), 『19세기말 20세기 초 동아시아, 세계관적 전환과 지식인의 동아시아 인식』(『대동문화연구』 제50집)

‘우리는 동아시아를 어떠한 시각으로 인식하고 역사적 대상을 연구할 것인가?’ 라는 것과 맥을 같이 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동아시아’를 인식 틀로 삼아 일국 중심의 서유를 뛰어 넘어 연구 대상을 바라볼 때 가능할 터이다.

정민 교수의 『18세기 한중 지식인의 문예공화국』(문학동네, 2014.5.23, 720쪽)은 이러한 동아시아 인식에 부합한다. 이 책은 저자가 후지쓰카의 전용 원고지에 필사된 한 권의 책을 만난 것을 계기로 18세기와 19세기 초 동아시아 삼국의 지식인이 상호 교류한 구체적 사실을 밝힌 중요한 학적 성과다. 이 책은 동아시아 지식인들이 문예물로 친교와 우정을 나누며 지적 커뮤니티를 실천한 사실을 학적 대상으로 삼아 이를 ‘문예공화국’²⁾으로 포섭하였다. ‘문예공화국’이 내함(內含)하는 의미는 저자의

에서 ‘흔들린 조공질서’(朝貢秩序)란 개념을 도입한 이후 임형택(2009), 『문명의식과 실학』, 돌베개; 임형택(2009), 『17~19세기 동아시아, 한·중·일간의 지식교류의 양상—‘이성적 대화’의 열림을 주목해서』(『대동문화연구』 제68집); 임형택(2010), 『17~19세기 동아시아 상황과 연행·연행록』(『한국실학연구』 제20호) pp. 7-26 참조

- 2) 문예공화국은 동아시아 문인들이 문예지식을 두고 상호 소통하는 것을 말한다. 대체로 전근대 동아시아 각국의 지식인들은 使行을 계기로 학술과 문예지식을 소통하였다. 이처럼 동아시아 공간에서 특정한 문인과 문예 문제를 두고,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주고받은 것 자체가 주목할 만하다. 이 문예공화국은 일찍이 나카무라 신이치로(中村真一郎, 2000)는 『木村蒹葭堂のサロン』에서 에도막부 시기의 겸가당(蒹葭堂)을 중심으로 한 문예그룹을 문화공화국(文化共和國) 혹은 지식공화국(知識共和國)이라 이름 붙인 바 있으며 그 이후 다카하시 히로미(高橋 博己, 2009)가 『東アジアの文芸共和國』에서 문예공화국을 언급했는데, 여기서의 문예공화국은 이를 차용하였다. 그런데 서구 지식인의 교류 공간이던 살롱을 ‘지식 공화국’으로 인식한 바 있는데, 동아시아 공간에서 이 개념을 다르게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본디 ‘지식 공화국’은 15세기에서 18세기 서구 학자들이 자신을 ‘학식 공화국’[Republica litteraria]으로 지칭한 것과 관련이 있다. 국경을 초월하는 어떤 공동체로 자신들의 소속감을 표현하기 위해 이렇게 불렀다. 이때 이 ‘학식의 공화국’은 문예공동체를 토대로 하는데, 달리 말하면 문예 공론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공동체적 소속감을 의미한다. 근대 초기 유럽에서는 편지나 책을 서로 교환하고, 서로를 방문하던 고유한 관습이 있었다. 젊은 학자들은 학자로서 길을 열어서 줄 수 있는 선배 학자들에게 존경을 표시하는 방식들을 의식화(儀式化)하였는데, ‘학식 공화

언급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많은 자료들을 찾아 들추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18세기 한중 지식인, 나아가 동아시아 지식인들이 꿈꾸었던 문예공화국이 생각보다 규모가 웅장하고 깊이와 너비에 지속성을 갖춘 대단한 지적 커뮤니티였음을 깨닫고 감개가 무량했다. 그저 호기심에서 스쳐 조우한 일과성 만남이 아니었다. 한 사람과 한 사람의 만남은 곧이어 자신들이 속한 그룹들과의 만남으로 확산되었고, 비록 한 차례 상면 이후 대부분 다시는 얼굴을 볼 수 없었음에도 이들은 죽을 때까지, 아니 그 후배와 자식과 손자 대까지도 교류를 이어나갔다. 하나의 만남이 다른 만남을 호출하고, 이 만남들이 하나의 대형을 이루어 보다 큰 커뮤니티를 향해 나아가는 광경은 장관이라는 말로밖에는 설명하기 어려웠다.(712쪽)

저자의 동아시아 시각은 이미 예전의 일부 논문에서 그 단초를 확인할 수 있지만,³⁾ 이 책은 기존의 동아시아 인식을 확대하고 하나의 저작으로 구체화 시킨 것이다. 특히 정민 교수는 18세기부터 19세기 초까지 동아시아 지식인이 인적네트워크를 통해 문예를 상호 소통한 사실과, 한·중, 한·일의 지적 커뮤니티의 실재를 평등안(平等眼)으로 밝혔다.⁴⁾

국'은 이러한 문예공동체의 지적 공간에서 탄생하였다. 이처럼 근대 초기 유럽의 지식인들은 '지식의 공화국' 혹은 '학식 공화국'이라는 가상의 공동체를 이루어 소통하였거니와, 이 국경 없는 공화국에서 각국의 지식인들은 오로지 지식과 문예를 공분모로 경계 없이 만나고 흠여졌던 것이다. 근대 초 유럽의 지식인들은 '지식 공화국' 혹은 '학식 공화국'의 성립에 관해서는 피터 버크 지음, 박광식 옮김(2006), pp. 101-141 참조. 이 책은 Burke, Peter (2000)의 원저 『A Social History of Knowledge : From Gutenberg to Diderot, Based on the First Series of Vonhoff Lectu』(Polity Press)을 번역한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진재교(2014), 『조선조 후기 문예 공간에서의 왕세정(王世貞)』, 『한국한문학연구』 제54집, 참조.

- 3) 정민(2012), 「19세기 동아시아의 모소(慕蘇) 열풍」, 『한국한문학연구』 제49집과 정민(2011), 「18, 19세기 조선 지식인의 병세의식」, 『한국문화』 제54집; 정민(2008), 「18세기 한문학 연구와 문화사적 시야」, 『한국한문학연구』 제41집이 대표적이다.

이 책은 저자가 하버드대 옌칭 도서관에서 후지쓰카의 컬렉션을 발굴하는 과정을 통해 동아시아 지식인의 지적 커뮤니티를 확인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후지쓰카 컬렉션의 발굴과정 그 자체가 여느 학술 저작과 다르기도 하지만, 18세기 한중 지식인의 문예와 학술 교류의 복원한 작업은 역사적 리얼리티가 있는 학적 재구성이다. 이를테면 저자는 후지쓰카의 저술과 그의 손때 묻은 구장서와 목록을 통해 연구를 정초(定礎)한 것은 물론, 이를 기초로 18세기 한·중 학술과 문예 교류의 상세한 실상을 비롯하여 에도막부의 『검가당아집도』와 겐카도 그룹과 연암그룹의 만남에 이르기까지의 한·일 교류의 성과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저작은 후지쓰카의 학문 태도와 연구 성과에 적지 않은 학적 빛을 지고 있거니와, 여러 곳에서 저자는 후지쓰카의 연구방법에 공감한 바 있다. 후지쓰카는 자신의 저술을 총설(總說)하는 자리에서 “청조 문화의 난숙기(爛熟期)라고 할 수 있는 건륭시대의 전성기를 배경으로 서로 만나 뜻이 통한 학자들을 생각하면 오늘날 우리조차 오히려 그와 같은 행복한 환경을 선망의 눈길로 바라보지 않을 수 없게 한다.”⁵⁾라 한 것은 저자가 추구하는 방향과 상동성을 지닌다. 이를 고려하면 저자는 후지쓰카 컬렉션의 복원과정을 통해 방법론으로서의 동아시아에 자연스럽게 다가선 셈이다.

정민 교수는 하버드대 옌칭 도서관에서 후지쓰카의 장서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18세기 지식인들이 우정과 문예를 나누는 행복한 광경을 상상하고, 스스로 선망의 눈길을 넘어 그 공간 속에 자신의 학적 역량을 이월시켰다. 정민 교수는 이 연구 과정에서 동아시아 공간 속에서 문예공화

4) 진재교(2009), 『18~19세기 초 지식·정보의 유통 메커니즘과 중간계층』(『대동문화연구』 제68집); 진재교(2011), 『18·19세기 동아시아와 지식·정보의 메신저, 역관(譯官)』, 『한국한문학연구』 제47집); 진재교(2014), 『18세기 조선통신사와 지식·정보의 교류』, 『한국한문학연구』 제56집 등을 들 수 있다.

5) 후지쓰카 치카시(2009), 『추사 김정희 연구—청조문화(淸朝文化) 동전(東傳)의 연구, 한글 번역본』 과천 문화원, p. 26.

국 주인공과 상상의 대화를 나누었음도 저서 곳곳에서 언급하고 있다.

저자는 책 첫머리의 ‘글을 열며’에서 그 주인공과의 대면을 생생하게 끄집어내고 있다.

한문을 공통 문어로 직접 만나서는 필담으로, 헤어져서는 편지로 소통했다. 조선 지식인이 그 중심에 있었다. 이들은 적극적 태도로 중국과 일본의 지식인들과 물꼬를 텃고, 서신 왕래와 학문 교류로 그 만남을 소중하게 가꿔나갔다. 이들은 연행사와 또는 통신사의 일원으로 중국과 일본으로 건너가서 단 한 차례 혹은 고작 몇 번 그들과 만났을 뿐이다. 그런데도 그 만남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동료와 후배 그룹으로 확산되어 오랜 세월 교류의 네트워크로 작동했다. 생각해 보면 참 근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만남이 만남을 낳고 책이 책을 부르는 이 아름다운 조우와 상봉의 기억들은 잊히고 문혔다.(5-6쪽)

지적인 만남과 서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아름다운 조우와 상봉의 기억을 복원하자는 문제 제기는 동아시아를 방법론으로 삼자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한자문화권이라는 언표가 대변하듯 전근대 한문 기록과 그것이 남긴 문예물은 일국 너머로 상호 교통하였음은 주지하는 바다. 무엇보다 18세기 지식인들은 사행(使行)을 계기로 서로 만나 학술과 문예를 주고받았다. 이것은 연구 방법으로서의 동아시아로 바라볼 수 있는 단초다. 따라서 동아시아 지식인들이 벌인 ‘교류의 네트워크’는 동아시아의 지평에서 당대의 학술과 문예를 바라볼 때 가능할 터이다.

실제 동아시아 각국의 체제가 가장 안정되던 18세기는 사행을 통해 상호 교류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인적 교류와 문예의 상호 교류도 인적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다양한 문예물과 지식인이 교통(交通)하는 장(場)은 역사적 리얼리티의 현장이기도 하고, 일국 너머 타자와 관계 맺는 탈 경계의 모습이다. 이 점에서 이 책은 동아시아

의 공간에서 소통하는 실재를 인식하고 여기에서 상호 소통과 교섭의 사례를 검토하는 것은 기왕의 연구방법의 성찰을 의미한다. 이를테면 정민 교수는 ‘조우와 상봉의 기억’을 학적 공간에 부활시켜 일국의 문화적 경험만을 범주화한 기존의 연구 시각과 방법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⁶⁾

2. 고증학(考證學)의 부활과 실사구시(實事求是)

인문학의 첫째 미덕은 주제와 관련한 충실한 자료의 섭렵과 이해, 이를 기반으로 논제를 전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널리 증거를 찾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고증학과 통한다. 일찍이 명말청초의 고염무(顧炎武, 1613~1682)는 학문연구방법으로 귀창(貴創)·박증(博證)·치용(致用) 세 가지를 들었다. 이 책에서 정민 교수는 후지쓰카의 자료를 발굴하면서 그가 미처 논하지 못한 부분이나, 혹은 중요하지만 자세하게 주목하지 않은 것을 구체화시키고 이를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 고염무가 언급한 귀창에 부합한다. 또한 답론보다 사실을 중시하고,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널리 자료를 찾아 자료와 자료를 상호 연결시켜 사실을 확인한 다음, 이를 토대로 인적 관계망과 그 교류의 실재를 규명하고 있다. 이는 고염무의 박증과 통한다. 귀창과 박증은 고증학이 우선적으로 지향하는 방향이다.

후지쓰카는 자신의 저술 머리말⁷⁾에서 서로 18세기 한·중 지식인들이

6) 이것은 “지금 학적 사고의 논리에서 호출한 동아시아는 우리 삶과 직결된 장이면서 한국학을 제대로 하자면 필히 요망되는 방법론으로서의 동아시아다. 동아시아 지평은 목적이 아니라, 세계 보편의 수에 도달하는 계단임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임형택(2014), 『한국학의 동아시아 지평』, 창비)라는 임형택 교수의 문제 의식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7) 후지쓰카 치카시(2009), 『추사 김정희 연구-청조문화 동전의 연구, 한글 완역본』 과천 문화원, 머리말.

‘서로 만나 뜻이 통한’ 실상의 확인과정을 적은 바 있다. 그는 처음 북경 유리창에서 청나라 학자 진전(陳顛, 1753~1817)의 『간장문초』(簡莊文鈔)에서 「정유고략서」(貞蕤稿略序)에서 박제가(朴齊家)의 존재를 알고, 이후 오성란(吳省蘭)의 『예해주진』(藝海珠塵)에 수록된 『정유고략』(貞蕤稿略)을 통해 그 학술적 성과를 선명하게 인식한다. 이후 후지쓰카는 1926년 경성제대의 교수로 부임한 뒤, 『사가시』(四家詩)를 읽으면서 사가(四家)가 청조 학인인 이조원(李調元)과 반정균(潘庭均) 등과 교류한 학적 성취를 이룬 학인임을 확인한 바 있다. 이어서 『북학의』(北學議)와 『호저집』(縞紵集)을 통해 박제가의 학적 역량과 조선조와 청조의 학술적 인연을 파악하고, 스스로 박제가의 제자인 김정희의 학예를 통해 청조 학문의 핵심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적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실사구시의 학문이라 한 뒤, “500년 이래 일찍이 보지 못한 새로운 국면”으로 규정하였다. 이를 위해 후지쓰카는 10여 년 동안 1,000여 권 서적과 서간·서화·탁본류 1,000점을 수집하였음을 고백한다. 후지쓰카 자신이 모은 고서와 서적을 비롯하여 서화와 탁본을 연구의 기초로 삼았거니와, 그 자신 이를 실사구시의 학문, 이른바 고증학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 책에서 정민 교수의 연구방법도 후지쓰카의 연구방법과 통하고 있다. 정민 교수는 이러한 후지쓰카 컬렉션을 통해 조선조와 청조의 학술적 인연을 학적 차원에서 재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저자는 후지쓰카와 마찬가지로 충실한 자료 조사와 자료의 섭렵 위에서 논리를 구축하고 있다. 고증학의 전형적인 방법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후지쓰카의 실사구시의 방법을 부활시켜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그들의 문제 접근 방식은 늘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었다. 그들은 담론보다 팩트를 주로 다루었다. 팩트를 꼼꼼히 찾고 정리해서 보여 줄 뿐, 무얼 말하거나 가르치려 들지 않았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팩

트가 직접 말하게 했다. 오늘날 연구자들은 흔히 팩트는 뒷전이고
 담론부터 꺼내든다. 기존에 정리된 팩트를 자신의 힘으로 더 찾거나
 새로 들여다보는 일 없이 담론에 편승해 슬쩍 건너가는 일을 논문
 쓰는 작업으로 착각하는 경우를 흔히 본다. 팩트에 바탕을 둔 학문
 은 오래가고, 생산적이다. 담론에 바탕을 둔 학문은 다 그런 것은 아
 니지만 사상누각이 많다. 담론의 학문은 근사해 보인다. 팩트를 찾
 고 정리하는 일은 대단히 소모적인 일로 느껴진다. 하지만 팩트의
 학문에는 어느 순간 비월(飛越)이 일어난다. 공부는 이 점을 구체적
 으로 인식하고 생각하는 데서 시작된다. 공부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일이다. 남의 것을 훔쳐 눈속임으로 넘어갈 수 없다. 순간적 비
 월은 누적된 시간의 결과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한 땀 한
 땀 차곡차곡 누적된 공부라야 어느 단계에서 비약과 초월의 순간과
 만난다. 슬쩍슬쩍 말만 바꿔 하는 공부는 한순간에 무너진다.(140쪽)

정민 교수는 ‘팩트를 찾고 정리하는 일’을 위해 수많은 발품을 팔아
 ‘한 땀 한 땀 차곡차곡 누적된 공부’로 녹여내고, 사실 확인을 위해 소모
 적일 만큼 끊임없이 자료 발굴과 정리가 선행되었음을 책 곳곳에서 밝혔
 다. 저자는 머리가 아닌 발로 찾은 자료를 토대로 이 책을 저술한 것이
 다. 후지쓰카 컬렉션을 찾기 위해 발품 팔며 찾은 과정과 찾은 자료를
 다른 자료와 상호 대조하며 확인하고, 이를 착종시켜 연결하는 것은 고
 증학의 핵심이다. 이는 비생산적인 것이 아니라 학문적 비월(飛越)을 위
 해서는 필수적이다. 이 점에서 정민 교수의 연구방법은 고증학의 창신
 (創新)이자 신고증학인 셈이다.

저자는 하버드대 엔칭 도서관의 고서 검색시스템인 홀리스 클래식
 (Hollis Classic)의 검색 엔진을 비롯하여 국내외의 다양한 검색 기능의 활
 용은 아카이브와 박물관을 살살이 뒤지고, 눈과 발품을 팔았다. 엔칭 도
 서관의 초대관장 추카이밍[裘開明]의 아카이브도 열람하였다. 심지어 엔
 칭 도서관의 도서 구입 내역까지 살펴 후지쓰카 구장서를 확인하고 있

다. 더욱이 정민 교수는 연칭 도서관에서 숨어 있던 50여 종 200여 책의 후지쓰카 구장서를 확인하고, 그 구체적인 장면과 장서의 내용을 이 책에서 생동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 발굴 과정과 그것을 학적 차원으로 적절하게 녹여낸 솜씨야말로 이 책의 질적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다.

그리고 저자는 책 곳곳에서 고증의 방법과 그 성과를 적실하게 보여준다. 예컨대 박제가가 그랬다는 「연평초령의모도」(延平齋齡依母圖)를 두고 사진작가까지 대동하고 촬영하는가 하면, 실물을 보고서는 순간순간 현장의 느낌을 메모해 두고 이를 논제로 녹였다. 논제와 관련한 자료는 직접 발품을 팔아 확인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실물을 확인하는 것은 서술의 방향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사실 이 그림의 진위여부를 밝혀나가는 과정과 시선은 그야말로 신고증학을 제기한 연구자의 자세일 터이다.

이 외에도 저자는 박제가를 비롯하여 연행 사신들이 가장 즐겨 찾았던 유리창 서점가인 오류거(五柳居) 주인인 도정상(陶正祥)의 개인사를 규명하는 과정도 고증의 자세를 여실히 보여준다. 정민 교수는 손성연(孫星衍, 1753~1818)의 『오송원문고』(五松園文稿)에서 「도정상묘갈명」(陶正祥墓碣銘)을 찾아내고, 섭창치(葉昌熾, 1847~1917)의 『장서기사시』(藏書紀事詩)와 『한산인시집』(韓山人詩集) 등을 통해 도정상의 개인사를 조명하고 있다. 일면 사소해보이지만, 결코 사소하지 않은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료를 수소문하여 실체를 밝혀내고, 이를 통해 한·중 지식인의 지적 커뮤니티의 가교 역할을 구체화시킨 것은 저자의 고증학 방법이 낳은 성과에 다름 아니다.

뿐만 아니라 저자가 메모조차 놓치지 않고 학술적 논제로 확대한 것 역시 학적 미덕이다. 정민 교수는 후지쓰카의 구장본인 『호저집』(縞紵集) 속에 있는 메모를 토대로 원대(元代) 회화(繪畫)인 「노주설안도」(蘆洲雪雁圖)가 한·중 문화 교류의 상징이 된 사연을 꼼꼼하게 살피고 있다. 조그만 메모 하나도 허투루 보지 않고 활용하여 치밀한 고증으로 구체적인

인 사실을 밝혀내는 것은 고증학 연구방법의 연장이거나, 저자의 발표와 실사구시의 자세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일 터이다. 이 외에도 저자는 고증의 사례를 책 곳곳에 담아 두고 있다. 박제가가 조선조 후기 유명한 서쾌(書僮)였던 조생으로부터 『노주설안도』를 구입한 경위, 2차 여행시에 박제가가 연경의 청조 지식인의 제발(題跋)을 받기 위해 들고 간 사정, 그리고 이후에 여러 사람의 손을 타며 돌아다니던 정황을 상세하게 밝힌 것 역시 고증학의 구체적 사례다.

정민 교수가 “기록이 있었기에 이미 자취 없이 사라진 문예공화국의 복원을 꿈꿀 수 있었다. 서로 간에 오간 편지 하나, 메모 한 장도 버려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다. 필담을 적은 종이를 들면 당시의 장면이 동영상처럼 돌아갔다. 나달나달해진 편지 한 장에는 안타깝고 그림고 설레는 마음들이 생생하게 묻어 있었다.(710쪽)”라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편지 하나 메모 한 장이지만, 서사로 이어지는 동영상의 한 장면처럼 만든 것은 저자의 고증의 태도가 낳은 결과다. 저자는 고증의 방법으로 18세기 문예공화국을 복원하였다. 이러한 안목과 방법은 고염무가 언급한 귀창과 박증에 귀결될 수 있을 것이다.

3. 학술적 글쓰기, 대중과의 행복한 만남

정민 교수의 이 책은 2013년 3월 6일부터 같은 해 12월 26일까지 매주 한 차례 온라인 상에 연재한 학술 저작이다. 기왕의 저서와 달리 마치 전근대 중국 소설의 장회체 서사방식을 연상케 하는 구성 방식과 글쓰기를 보여준다. 40화의 서사로 전체 책 내용을 구성한 것도 그렇고, 대중 독자를 향해 흥미와 열린 읽기를 유도한 것도 그러하다. 이는 전문 학술 저작과 대중의 만남을 위한 새로운 방향이다. 주제에 대한 저자의 박학 과 학적 역량과 대중의 심성을 파고드는 글 솜씨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정민 교수는 이전의 저작에서도 전공자를 위한 글쓰기를 넘어 대중과 호흡하는 길을 개척한 바 있다. 그래서 정민 교수의 많은 저작은 학술서이지만, 재미있는 구성과 맛깔 나는 글쓰기로 대중과 만났다. 주지하듯이 모든 학술서가 대중에게 다가갈 수도 없고, 다가가더라도 대중들이 흥미를 가지고 읽을 수 없다. 학술 글쓰기의 대중화 전략에 의한 독자의 성립은 정민 교수처럼 특유의 감수성과 학적 역량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이는 누구도 쉽게 넘볼 수 없는 저자 특유의 지적 내공일 터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18세기와 19세기 동아시아 공간에서 지식인이 상호 소통하는 장면을 거시적 시각 하에 미시적 사례를 적절하게 활용하며 전체 논지를 이끌어가고 있다. 딱딱하고 어려운 전공 지식을 단순 전달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자료를 발굴하는 체험을 적절하게 섞어 독자에게 전달하였다. 하버드대 엔칭 도서관을 비롯하여 필요한 자료를 발굴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포착하는가 하면, 그것을 학술적 논지와 결합하고 있다. 그래서 40화의 각 장면은 마치 한 편의 짧은 서사를 연상시킨다.

이를테면 담헌(湛軒) 홍대용(洪大容)의 「건정동필담」(乾淨洞筆談)과 한족(漢族) 선비 엄성(嚴誠)의 『일하제금집』(日下題襟集)의 기록을 토대로 연행사(燕行使) 일행이 연경 유리창의 고서 거리에서 창조 지식인들과 우연히 맞닥뜨리는 부분을 재구성한 것은 단적인 예다. 홍대용과 엄성이 만나는 계기와 그 과정을 단순 번역하여 요약하지 않고, 마치 서사의 주인공이 만나는 장면처럼 흥미진진하게 포착하고 있다. 이는 저작 곳곳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 딱딱한 학술적 글쓰기를 밀쳐두고, 한문 고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임은 물론이다. 이처럼 어려운 한문 고전을 서사 방식으로 재구성하여 제시함으로써 독자의 시선을 사로잡아 흥미를 준 것 역시 정민 교수 특유의 글쓰기다. 특히 개인적 체험과 자료의 발굴 과정을 학술적 글쓰기와 결합시켜 대중의 눈높이를 넘나드는 글 솜씨는 자료를 장악하는 힘과 학문적 축적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또한 이 책에서 정민 교수는 서적과 문예물의 유통을 둘러싼 에피소드

나 주변 지식을 논제와 결부시켜 재미를 덧붙이고 있다. 이를테면 연칭 도서관의 선본실에 처음 들어가던 과정을 서술한 대목이나, 『흙정고금도서집성』(欽定古今圖書集成) 5,020책의 수입과 이후의 표지 개장작업과 포갑과 관련한 정조의 노력, 그리고 『겸가당아집도』(蒹葭堂雅集圖)를 직접 확인하고 감상하는 장면이라던가, 나빙(羅聘, 1733-1799)의 「귀치도권」(鬼趣圖卷)의 존재와 그 영인본을 확인하는 과정이 그렇다. 「귀치도」의 해골 모양이 1543년 안드레아스 베살리우스(Andreas Vesalius, 1514-1564)가 그린 인체 해골 목판화를 보고 베낀 사실을 구명한 것은 저자의 혜안으로 독자에게 강한 재미를 준다. 게다가 그간 잘 알려지지 않았던 표암 강세황의 「연행도」(燕行圖)와 그가 연행 당시의 서첩 실물을 박물관에서 확인하고 이를 소개한 것과 후지쓰카의 자제인 후지쓰카 아키나오가 추사관련 자료를 과천시에서 기증하는 장면을 서술한 대목도 사실을 넘어 독자에게 진한 감동을 준다.

더욱이 논제와 관련한 다양한 방식의 글감 제시와 시각 정보를 삽입한 것은 선명한 논지와 함께 독자들에게 재미를 준다. 덧붙여 저자는 독자를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글감을 조정하여 논지를 부각시키되, 곳곳에서 독자를 배려하고 있다. 정민 교수는 이 책의 마지막까지 그러한 끈을 놓지 않는다. 처음 발굴한 글감과 논지에 필요한 경우, 한문 원문을 해석하지만, 필요에 따라 원문의 번역 대신에 문답형식으로 바꾸어 독자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열하일기』 7월 27일에 연암이 절강 선비 임고(林皐)를 만나 나누는 대화와 이덕무가 조운형에게 ‘고금도서’(古今圖書) 네 글자를 써 달라고 하면서 골리는 장면 등이 그 예다.]

또한 긴 번역의 경우 상황에 맞게 줄여서 요점만을 제시하거나, 필요한 경우 원문을 번역문만 제시한 데도 있다. 저자가 직접 사진을 찍어 시각 자료를 획득하고 이를 책 곳곳에 배치하여 독자의 관심을 돌우는가 하면, 사진을 배치하여 한문 원전을 대신하는 아이디어로 가독성을 높이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깔끔하고 감칠맛 나는 번역은 독자의 눈을 더욱

즐겁게 한다.

하지만 이러한 미덕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몇 가지 대목에서 사소한 아쉬움이 있다. 한문 원전과 번역문의 제시가 불균형하다는 점이다. 번역문 아래에 한문 원문과 출처를 제시한 곳이 있는가 하면, 제시하지 않은 곳도 있다. 논제와 관련한 기존 연구 성과를 제시하지 않은 부분도 아쉽다. 또한 40화의 각 소제가 서로 긴밀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예컨대 제10화의 ‘작은 의문에서 뺀 생각-조선사편수회의 스탬프’는 이 책의 논지와 상관은 없지 않으나, 지나치게 미시적이며 앞뒤 화소가 썩 어울리지 않는다. 그리고 제39화인 ‘기억의 흔적-「겸가아집도」의 출현’ 역시 흥미롭지만, 전체 논지로 보면 사족에 가깝다. 18세기 에도막부 지식 인과의 교류는 분량도 그렇지만, 또 하나의 문예공화국이라는 큰 주제로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소한 아쉬움이 이 책의 성과를 전혀 훼손하지는 못한다. 이 책은 한 학자의 학적 역량이 발산된 역작이다. 세밀한 사실을 파고들어 규명하고, 조그만 주제를 연결시켜 큰 논제로 연결하는 구성 방식은 재미있고, 눈에도 쏙 들어온다. 있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 자체가 공부이며, 이것에 충실하는 것이 학자의 최우선 덕목이다. 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 책은 이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여기서 원론적인 문제이자 우리의 고민 하나를 자문해 본다. 흔히 초점의 세분화와 세부적 사실에 대한 탐색은 종종 문제의식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세분화된 지식과 사실의 확인만을 중시하는 연구 방법은 문제의 근원을 탐색하거나 이의 해명을 간과하기 쉬우며, 시대적 함의나 역사적 맥락을 놓치기도 한다. 사실 확인에 지나치게 경도될 경우, 지식의 차원에 머물러 지식 내부에서 모색할 수 있는 지적 긴장감을 상실하거나, 기왕의 지식체계에 충격을 주지 못하거나 결과적으로 기성의 지식체계 안으로 포섭(包攝)되기도 한다.

앞에서 고염무가 귀창(貴創)·박학(博證)과 함께 치용(致用)을 거론한

것을 언급한 바 있다. 치용은 현실과 관련시켜 학문과 사회의 관계를 밀접하게 바라보는 것이다. 이는 지금 이 시점에서 어째서 문제가 되어야 하는가를 제기하고, 이를 규명하는 것에 연구의 방향이 있다. 어찌 보면 연구자의 문제의식과 연구자의 존재방식을 자문하는 것과는 관련성을 지닌다. 방법으로서의 동아시아를 제기한 것도 연구자가 처한 현실적 문제의식과 연구자의 아이덴티티와 깊은 상관성을 지닌다.⁸⁾

고염무가 제시한 귀창·박증·치용의 통섭은 매우 어렵고, 연구방법으로써 저작에 반영하는 것은 어찌면 불가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서 이것을 환기하는 것은 한국학의 방향 전환을 견인하고 새로운 학적 성과를 지속적으로 내는 정민 교수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지근에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하버드대 옌칭 도서관에서 발굴한 많은 자료를 19세기까지 이월시켜 문예공화국의 장대한 꿈을 다시 한 번 펼칠 것도 기대한다. 새로운 학술적 글쓰기의 신선한 글맛을 기대하는 것은 필자뿐이 아니기 때문이다.

8) 미조구치 유조는 중국학 연구는 기본적으로 연구자가 제시한 문제에 근원적으로 질문하고 이것은 결국 연구자 주체의 아이덴티티와 관련된 것이라 제시한 바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미조구치 유조 지음(2009), 서광덕 외 옮김, 『중국의 충격』, 소명출판, pp. 29-42 참조.